

후지보 텍스타일 - 협력 공장 등의 활용으로

검품 물류 코스트 삭감

후지보 텍스타일은 전기(2005년도기)에 제품 사업의 채산이 악화하여 금년(2006년기)에는 중국에서 검품 물류 코스트 등을 삭감함으로써 이익률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후지보 텍스타일은 전기에는 외환 거래에서 엔(円)화가 떨어지자 큰 영향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가격 결정을 신중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물류 가공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코스트를 삭감함으로써 채산을 개선하겠다는 생각을 말하였다.

봉제는 중국의 산둥성(山東省)과 상하이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상하이에서는 여러 개의 봉제 공장을 이용하고 있어, 공장 단위로 검품·출하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작업을 한 곳으로 모아 정리함으로써 물류 코스트를 낮추고 있다. 산둥성에는 제성 후지보의 합판 상대인 산셀 그룹과의 협조가 주체이므로 이미 한 곳으로 모아 정리하고 있다.

베트남에 합판으로 봉제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협력 공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6월 하순부터 조업을 시작하였다. 일본계 기업이 설립한 협력 공장은 공장 스페이스 전부를 후지보 텍스타일이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생산 능력은 이너 등으로 연간 약 210만 매가 된다.

협력 공장으로 한 것은 빨리 시작할 것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번의 협력 공장에 출자하느냐 단독으로 다른 공장을 설립할 것인가는

앞으로의 검토 사항인데, 중국으로의 일극 집중을 피하기 위하여도 언젠가는
자가 공장을 가져야한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